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2

제 [] 선택

1.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윤리학이란 인간이 준수해야 하는 보편적인 도덕규범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정당화하는 학문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윤리학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도덕 현상을 가치 중립적으로 서술하는 학문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윤리학의 핵심 과제가 ㉠ 고 생각한다.

- ①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임을 간과한다
- ② 도덕 현상 간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는 것임을 간과한다
- ③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임을 간과한다
- ④ 도덕적 관행이나 관습을 객관적으로 탐구하는 것임을 간과한다
- ⑤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되는 원리를 정립하는 것임을 간과한다

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수령은 자애로워야 하고, 자애로워지려는 자는 청렴해야 하고, 청렴해지려는 자는 검약해야 한다. 씹씹이를 절약하는 것은 수령의 으뜸가는 임무이다. 청렴은 천하의 큰 장사이므로 백성을 위해 크게 탐하는[大貪] 자는 반드시 청렴하려 한다.
○ 관아의 아전과 하인[官屬]들을 통솔하는 방법은 위엄과 믿음 뿐이다. 위엄은 청렴함에서 생겨나고 믿음은 성실함에서 나오는 것이니, 성실하면서 청렴해야 많은 사람을 복종시킬 수 있다.


- ① 공직자는 관청의 재물을 절약하여 사용해야 한다.
- ② 공직자는 직무를 투명하고 성실하게 처리해야 한다.
- ③ 공직자는 백성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 ④ 공직자는 공사(公私)를 구분하지 않고 일을 처리해야 한다.
- ⑤ 공직자는 백성에게 모범이 되도록 청렴한 삶을 실천해야 한다.

3. 다음 가상 편지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들에게
사람이 비록 학문에 뜻을 두었다 하더라도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지 않으면 결국 학문을 성취하지 못하게 된다. 잘못된 습관에 해당하는 것들 중 하나는 매사에 욕심만 부리고 아무런 절제함이 없어 재물과 음악에 빠져 있는 것이란다. 이러한 습관은 사람의 뜻을 견고하지 못하게 하고 행실을 성실하지 못하게 만들며, 잘못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아침에 행한 것을 후회하고도 저녁이면 반복하게 된다. 반성하는 공부를 통해 잘못된 습관을 제거한 후에야 참된 학문에 나아갈 수 있고 비로소 바른 인품을 갖추 수 있음을 명심하렴. ... (후략).

- ① 인격 완성을 위해서 모든 습관을 버려야 한다.
- ② 한 번의 절제함으로 헛된 욕심은 항상 제거된다.
- ③ 학문의 뜻이 확고하면 잘못된 습관은 저절로 개선된다.
- ④ 풍요로운 재물을 얻기 위해 자신의 행실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 ⑤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은 참된 학문의 익힘에 영향을 준다.

4.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만약 어떤 존재가 고통을 느낀다면 그러한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동물의 고통을 인간의 고통과 달리 저급하게 여기는 행위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중 차별주의에 해당한다.
(나)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0%;">동물 실험 허용 여부를 논의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0%;">㉠ 고려하세요.</div> </div> 

<보 기>

- ㄱ. 모든 동물은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임을
 - ㄴ. 이성적 존재만을 도덕적 존중의 대상으로 간주해야 함을
 - ㄷ. 고통을 느끼는 존재의 이익을 평등하게 취급해야 함을
 - ㄹ.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모든 존재는 도덕적 지위가 있음을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복제된 배아는 아직 완전한 인간 개체가 아니므로 인간으로서 도덕적 지위를 지니지 못합니다. 따라서 배아 복제로 추출된 줄기세포를 이용한 난치병 치료를 통해 인류 복지 증진에 힘써야 합니다.
을: 줄기세포를 이용한 난치병 치료는 인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줄기세포를 얻기 위한 배아 복제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제된 배아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므로 연구 과정에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갑: 아닙니다. 복제된 배아는 인간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자궁에 착상하기 이전에 추출되므로 그 자체만으로 완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또한 배아 복제와 관련된 부작용은 법적인 규제 장치를 마련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을: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인 규제 장치가 있다고 해도, 배아 복제 연구를 위해 필요한 난자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건강권과 인권이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복제된 배아를 이용한 연구는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합니다.

- ① 배아 복제에 대한 법과 제도가 필요한가?
- ② 인간은 도덕적 지위를 갖는 존엄한 존재인가?
- ③ 배아 복제를 통해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는가?
- ④ 복제된 배아를 이용한 연구는 허용되어야 하는가?
- ⑤ 난치병 치료는 인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

11. (가), (나)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출산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따라서 혼전이나 혼외의 성적 관계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나) 사랑은 인간의 성적 관계가 정당화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따라서 사랑이 없는 성적 관계는 그것이 결혼 및 출산과 관련된다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 <보 기> —
 ㄱ. (가): 성적 관계의 목적은 생식적 가치의 실현에 있다.
 ㄴ. (가): 부부만이 정당한 성적 관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ㄷ. (나): 자발적 동의에 근거한 성적 관계는 항상 정당화된다.
 ㄹ. (가)와 (나): 성적 관계는 도덕적 제약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까지 순종이 여성의 본성이라고 가르쳐 왔지만, 남녀의 본성은 누구도 알 수 없으며 남녀 간의 차이는 교육과 주변 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다양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방해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재능 활용의 기회를 막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옳지 않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그들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 ① 남성과 여성에게 차별 없는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가?
- ② 남성이 독점해 온 직업을 여성에게도 개방해야 하는가?
- ③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은 선천적으로 결정되어 있는가?
- ④ 남성과 여성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가?
- ⑤ 남성과 여성 모두를 위해 양성평등의 사회를 실현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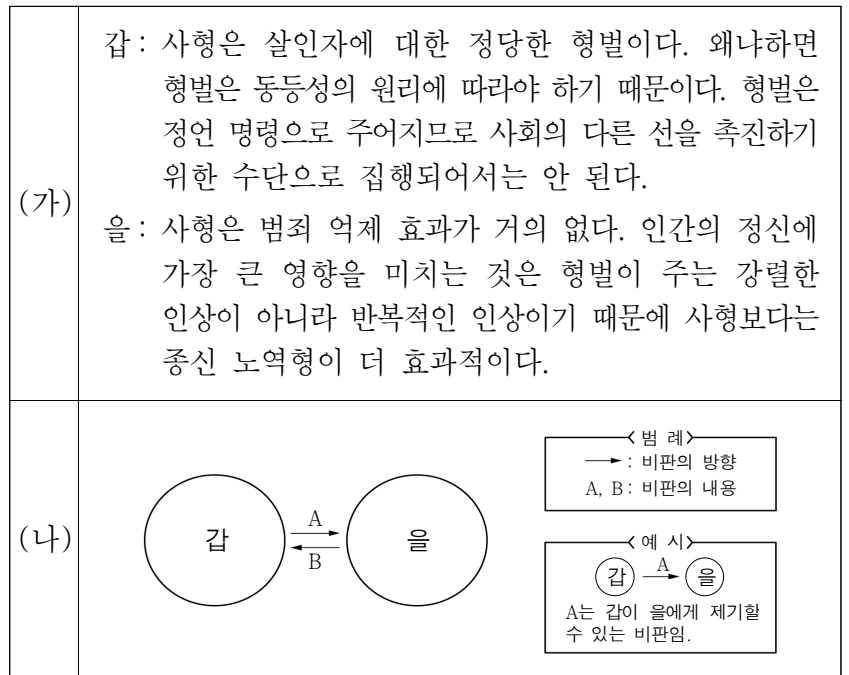
13.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시민 불복종은 체제의 변혁이 아닌 법이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 반(反)하는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즉, 시민 불복종은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공동 사회의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중한 입장에서 볼 때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들 간에 사회 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선언하게 됩니다.



- ①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이며 도덕적인 행위이다.
- ② 시민 불복종은 민주적 입헌 체제의 안정에 기여한다.
- ③ 시민 불복종은 공공의 정의관에 근거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 ④ 시민 불복종 참여자는 불복종에 대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 ⑤ 시민 불복종 참여자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준수하고자 한다.

14. (가)의 사상이 갑, 을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A: 형벌은 법률을 통해서 집행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② A: 사형은 질서 유지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③ A: 사형은 살인자의 행위에 대한 응분의 보복임을 간과한다.
- ④ B: 형벌과 범죄 간에 비례 관계가 성립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⑤ B: 형벌이 주는 공포는 지속성보다 강도에서 나음을 간과한다.

1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유용성의 원리는 어떤 행위가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들의 쾌락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정도에 따라 각각의 행위를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원리이다. 이때 쾌락은 질적으로 동일하며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문제 상황>
 국회의원 A는 인공지능 수술 로봇의 도입에 대한 법안 발의에 참여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수술 로봇이 수술을 진행했을 때가 의사가 수술을 진행했을 때보다 수술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높일 수 있지만, 의료 사고가 났을 때의 책임 소재 문제와 의사의 의료 기술이 퇴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 ① 인공지능 수술 로봇의 도입이 정언 명령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하세요.
- ② 인공지능 수술 로봇의 도입이 가져올 이익과 손해의 총합을 고려하세요.
- ③ 인공지능 수술 로봇 도입의 결과가 아닌 도입하려는 동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세요.
- ④ 의사 개인의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인공지능 수술 로봇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세요.
- ⑤ 보편적 도덕 원리가 아닌 공동체의 전통에 따라 인공지능 수술 로봇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세요.

16. (가), (나) 사상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인(仁)을 행하려면 예(禮)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나) 자연 그대로 두면 어떠한 걱정거리도 없다. 인위적인 것을 강제하면 안 된다. 인을 끊고 의(義)를 버리면 백성이 다시 효도하고 자애로워진다.

- ① (가): 외면적 사회 규범인 예를 통해 인을 실현해야 한다.
- ② (가): 명예와 욕심을 버리고 무위(無爲)의 삶을 살아야 한다.
- ③ (나): 인의(仁義)를 실천함으로써 도(道)를 실현해야 한다.
- ④ (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식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⑤ (가)와 (나): 성인(聖人)이 되기 위해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

1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사람들은 각자 자기에게 맞는 일을 하도록 창조되었다. 각자 자신의 소명(召命)에 따라 부지런히 일하여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보다 신을 기쁘게 하는 일은 없다.
 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기계화와 분업에 의해서 자립성이 사라진다. 노동자는 기계의 단순한 부속물이 되고 오직 단순하고 쉽게 익힐 수 있는 조작만을 요구받는다.

- ① 갑: 부(富)를 축적하는 것은 신의 뜻을 어기는 것이다.
- ② 갑: 직업 노동은 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다.
- ③ 을: 자본주의적 분업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
- ④ 을: 인간은 기계화를 통해 육체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 ⑤ 갑과 을: 직업에는 귀천(貴賤)의 엄격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

1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질문에 모두 옳게 대답한 것은? [3점]

갑: 정의는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에 대한 정당성의 문제이다. 만일 어떤 개인이 취득과 양도에서의 정의의 원칙에 의해 소유 권리를 부여받았다면 그 소유는 정당한 것이다.
 을: 정의로운 분배는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된 정의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다. 정의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

	질문	대답	
		갑	을
①	공정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발생한 분배의 결과는 정당한가?	예	예
②	노동을 통해 취득한 재화에 대해서만 소유의 권리를 가지는가?	예	아니요
③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화해야 하는가?	예	아니요
④	사회 전체의 유용성을 위한 개인의 기본권 침해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아니요	예
⑤	이상적인 국가는 부정의를 교정하기 위해 분배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가?	아니요	아니요

19.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태아는 여성의 몸의 일부분이며 모체 밖으로 나와 독자적인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덕적 지위를 지닌 인간이 아니다. 따라서 인공 임신 중절은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율적 권리를 존중하는 행위이므로 허용되어야 한다.
 을: 태아는 임신 순간부터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지니기 때문에 태아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다. 따라서 인공 임신 중절은 잘못이 없는 인간을 해치는 비도덕적인 행위이므로 금지되어야 한다.

<보 기>
 ㄱ. 갑: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한 여성의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ㄴ. 갑: 태아가 지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면 안 된다.
 ㄷ. 을: 무고한 태아를 해치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ㄹ. 갑과 을: 태아와 인간의 도덕적 지위에는 우열이 존재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가)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철학자는 순수하게 지혜를 인식할 수 있다는 굳은 확신을 가진 사람이다. 그에게 죽음이란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 해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철학자는 죽음에 대해 초연한 마음을 갖는다.
 을: 현자는 삶에서 도피하려 하지 않고 삶의 중단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죽음은 산 사람이거나 죽은 사람 모두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현자는 삶의 즐거운 시간을 향유한다.

(나)

<보 기>
 ㄱ. A: 죽음 이후에 육체와 영혼은 모두 소멸하는가?
 ㄴ. B: 죽음은 참된 지혜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는가?
 ㄷ. C: 현자는 죽음을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고통으로 보는가?
 ㄹ. C: 현자는 단순히 긴 삶보다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선호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